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9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날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이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때이다. 성경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권고한다.

1. 성경에 계시된 이름에 대하여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와 생명과 인격과 지위와 그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이런 사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엄청 중요한 것을 포함한 계시로 알려 주신 이름이다.

[전9: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시41: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이 말씀들은 사람이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름이 멸망하는 것은 그 존재가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칭송한다.

[전7: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창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17:15,16]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32:27,28]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 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브람과 사래와 야곱을 그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달라질 때에 이름을 바꾸어주셨다.

2.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사30:27,28]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뿔뿔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28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계명에도 이 사실을 명시해 놓으셨다.

[출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대상16: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29:2]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96: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8:1,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 이니이다.

[잠18:10]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124: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이름에 돌리고 있다. 이름은 곧 그의 실체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이름에 담긴 계시적 신앙적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한다.

3.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원어로 기노스코($\gamma\iota\nu\omega\sigma\kappa\omega$)이다. 이것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는 것을 가리킨다. 직관으로 아는 것은 에이도($\epsilon\acute{\iota}\delta\omega$)를 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영생이다.

[호2:19,20]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홀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יָדָע)이다. 기노스코와 꼭 같은 뜻인데, 구약성경에서 이 말은 몇 번 동침(同寢)이라고 번역되었다.

[창4:1]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17,25, 삼상1:19, 왕상1:4).

그러므로 야다나 기노스코는 결혼한 남녀가 피차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님은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계시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가진 것이다.

[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 연장선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호5:4]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

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로 야다(לֹא יָדָע)”이다.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하는 지식은 아주 중요하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이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 된다.

[요일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시라.

[히5: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4. 여호와는 기념 칭호이다.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기념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내용을 가진 이름이다.

[출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표호이다. 여기 표호라는 말과 호12:5의 기념칭호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제케르(זֶכֶר)”이다. 이말은 기억 또는 기념물이라는 뜻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自存者)라는 말이다.

[출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5.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념하는 내용들

1) 존재하신 방법[양식(樣式)]의 기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첫째 이유이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나 밖(外)에 있다. 부모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고,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

2) 창조주 되심의 기념

스스로 계신다는 이름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 외에 우주 안에 어떤 존재든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선언이다.

[사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45: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여호와 외에 결코 창조자가 없다는 기념이 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창조자라고 밝히지 않아도 여호와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가 창조자이심을 드러낸다.

3) 심판주 되심의 기념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분이시며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있다고 주장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주장을 하는 존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존재를 반납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이 심판이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는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권이다.

[시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엷혔도다.

[시9:19,20]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서 자기를 알리신다. 인생이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가름 난다. 인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 일 뿐임을 드러내게 된다. 사람뿐이겠는가? 천사도 그렇게 된다.

[시9:16]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다. “야훼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걸려 들리라.” 심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이다.

[시9:16]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피한 일에 스스로 걸려 드는구나.(표준 새번역)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히 구별하여 알도록 하실 것이다. 사단의 반역으로 온 세상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혼돈 속에 처해 있다.

4) 생명의 주와 구원의 주되심의 기념

누구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와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여호화를 부인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존재를 잃게 되어 있다. 잃어버린 존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속주가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하여 창조주시오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사43: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나타내신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 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이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영원전부터 감춰있던 것이라고 하고 영원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말한다.

[롬16:25,2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었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딤텐1:1-3]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엡1:3-5]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딤후1:9,1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이 들어 있다. 사람이 사망이 되었을 때에 이 사실을 전도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6.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마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실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音譯)한 것이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을 바꾸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모세의 후계자는 다만 인간으로서 오실 구주의 그림자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고 새기는 것은 옳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새기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의 구주로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확실하지 아니한가.

7. 여호와를 알자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상에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그 이름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된다. 이름은 그분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중하게 여겼다. 이름은 그의 생명 존재 인격 성품 지위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처지와 인격이 바뀌면 이름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런 사상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으로 행하여진 사건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요일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겔18:23]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겔33:11]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도 사랑이 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롬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요일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모든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